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무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1열왕 19,9-11-13

화답송 | 시편 85(84),9-11-13-14(◎ 8 참조)



(후렴)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로마 9,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4,22-33

영성체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성가 | 입당 4 예물준비 340(212)
 영성체 163(164) 파견 29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도로시 다비스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정요한 세례자요한 영혼의 영원한 안식
- 송준호 바오로
- 노춘자 루실라의 영혼을 위해

생미사 지향

- 정윤옥 엘리사벳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초이스 피정 참가자들 및 봉사자들
- 김기례 레지나 영육 건강
- 연령회 회원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 재속3회 입회식 축하(한미영 안나, 김미화 마리클레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9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민완준 이경자	유정옥 정다경	정루하 김도이
8월 15일	백이백	정은철	김유화	정은철 김유화	*	한서희 이예진 최예준
8월 16일	장혜윤	국민준	민덕미	국민준 민덕미	김종선 이영혜	김수현 한서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이순자(로사), 정운사(베드로) 부부를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 8월 15일(토) 5:30PM

장소: 윗성당(upper Church)

* 미사지향 봉헌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7년 달력 광고비 납부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납부처: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o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330

신청마감: 8월 3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

오늘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출처: 김용민 신부, <바오로말 컨텐츠>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
(1765?-1815)



경상도 상주 은재에서 태어난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 (1765?-1815)는 장성한 뒤 고향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이후 노래산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15년 부활 대축일 무렵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된 그녀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조물주이신 천주의 은혜를 몰라보고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고 신앙을 증언

했다. 이후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한때 배교하여 석방되기도 했으나, 감영을 나서던 길에 안동에서 온 김종한 안드레아를 만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 그녀는 스스로 다시 감영으로 들어가 배교를 공개적으로 취소하며 "원하시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는 더욱 진실한 신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관장은 격노하여 혹독한 매질을 명했고, 김윤덕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옥에 끌려가 숨을 거두었다. 이때가 1815년 음력 4월 말 혹은 5월 초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가량이었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4, 가해, 2026. 08. 09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땅 끝에 이르기까지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복음이 땅 끝에 이르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1세기 신자들이 생각했던 땅 끝이라, 실제로는 바오로 사도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수인(囚人)으로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지요. 이 여행들은 모두 안티오키아에서 시작하여 안티오키아에서 끝납니다. 성경 마지막에 들어 있는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오로의 여행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활동 방식은 대략 비슷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다른 민족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주어지리라고 하셨지요(마태 21,43 참조).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사도행전 13,46에서 하는 말은 그들의 선교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바오로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시작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여러 짐승과 새들이 들어 있는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속된 것, 곧 율법에 금지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사도 10,15)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찾아 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습니다.

바오로 역시 선교 여행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미 성령이 내렸으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등의 규정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때문에도 의미가 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 9,23)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듣는 이들에 따라 설교 방식도 바꿉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전에 적힌 구절을 통해서 접근합

니다. 전에 그는 바리사이였고 율법에 대한 열성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넘어섭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살펴보면 바오로 사도가 성전에서 체포되고(21장) 최고 의회를 거쳐 카이사리아 총독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잡혀가는 여정이 선교 여행 못지않은 의미를 지녔던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에 바오로는 로마에 잡혀 있고 결국 거기에서 순교할 것이지만, 사도행전은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사도 28,31)라고 말합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 역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2, 2026. 0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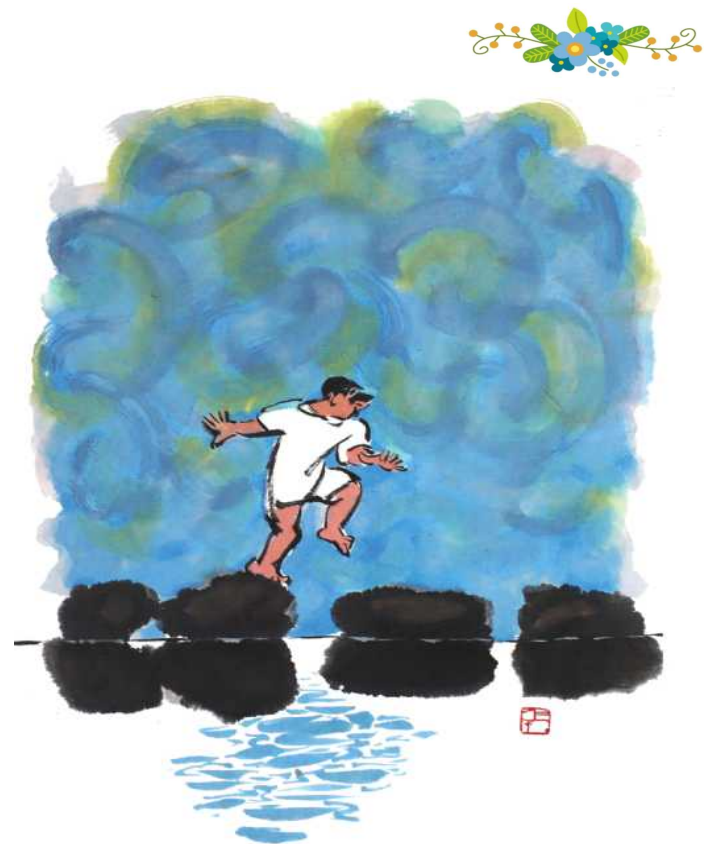


그림 독상

징검다리 건너기 | 믿음은, 물 위도 걷게 하고 하늘로도 오르게 한다는데, 아직껏 저는 둘다리마져 두드리며 건너는 네발짐승입니다. 폴짝폴짝 무심히 건너왔던 세월을 돌아보며, 다시 내일의 시간을 짚어봅니다. 원발로 내딛는 오늘의 망설임이 하느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길 기도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5호, 2026년 8월 9일(가해))